영광군 'RE100 산단' 추진…탄소중립 선도 도시 속도

2028년까지 대마면 송죽리·남산리 대마산단 165만㎡ 일원
데이터센터 집적단지·탄소중립 대응 국가 실증연구단지 등

영광군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영광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 수립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은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영광군은 '탄소중립 실천으로 미래세대가 행복한 영광'을 내걸고 ▲수소도시 조성 ▲넷 제로(탄소중립) 시티 조성 ▲군민과 상생 등을 목표로 세웠다.

최종 보고서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전략, 주민 참여 방안 등 6개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가 담겼다.

영광군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핵심시설은 'RE100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에너지센터', '탄소중립 대응 국가 실증연구단지' 등이 있다.

영광군은 대마면 송죽리·남산리 대마산업단지 165만㎡ 일원을 'RE100 산업단지'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는 3만3000㎡ 규모 'RE100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데이터센터 기업을 유치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을 지원·관리하는 '영광군 에너지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백수읍 하사리에는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실현할 '영광군 탄소중립 대응 국가 실증연구단지'를 700억원(국비)을 들여 조성한다.

영광군은 올해 1~2월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뒤 신청서를 낸 2개 업체 가운데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선정해 3월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에는 6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열고 지난달 2차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영광군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영광군은 올해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고, e-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오는 2025년까지 e-모빌리티 종합지원센터와 체험공원 등을 조성한다.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1만3230㎡에는 내년까지 3년여에 걸쳐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 시험센터를 구축한다.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최근 열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밑그림을 그렸다. 〈영광군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영광군이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미래세대가 행복한 청정부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완도군 내년 신규 시책 297건 검토 나서

해양치유센터-명사십리 걷기길
완도 전복 이용 동충하초 재배

완도군이 새롭게 제안받은 시책 297건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김현철 완도군 부군수 주재로 '2024년도 신규 시책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8월 한 달간 완도군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규 시책 297건을 제안받았다.

완도군은 1차 심사에서 30건을 추려냈고, 이날 보고회에서 최종 10건의 신규 시책을 선정했다.

이날 참석한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등 간부 공무원은 제안자의 시책 설명을 들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시책은 ▲해양치유센터 연계신지 명사십리에 맨발 걷기길 조성 ▲완도 전복을 이용한 명품 동충하초 재배 ▲우리 마을 가스 안전 지킴이 육성 ▲차량 교통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등이 있다.

선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부서별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완도군이 최근 '2024년 신규 시책 보고회'를 열고 내년 시행할 10건의 시책을 선정했다. 〈완도군 제공〉

김현철 부군수는 "민선 8기 2년 차에도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며 "각 부서에서는 군정에 대한 작은 관심이 완도군의 큰 발전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정책 발굴에 끊임없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30~31일 바닷물 4.9m 상승 주의"

목포시는 "30~31일 오후 바닷물 수위가 4.9m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목포시는 대조기(29~31일) 오후 바닷물 수위가 4.9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석표상 최고 수위는 30일 오후 3시 17분 4.99m로 예보됐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해안 저지대에서는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 남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전국 최초'

12~17세 무료·18~26세 50%

무안군이 전국 최초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이목을 끌고 있다.

무안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여성과 동일하게 12~17세 남성 청소년은 무료, 18~26세 남성은 접종비의 50%를 지원한다.

자궁경부암은 HPV(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며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을, 남성에게는 두경부암, 항문암, 생식기 질환을 유발한다.

HPV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무안군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되고, 18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안진화 무안군보건소장은 "HPV 감염이 젊은 층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접종비용 부담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남성까지 지원하게 됐다"며 "예방접종을 통해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진도군(군수 김희수·가운데)이 김귀성(왼쪽)·조명현씨에게 마을 행정사 위촉장을 전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마을 행정사' 위촉…무료 상담 제공

진도군이 '마을 행정사' 2명을 위촉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마을 행정사로 위촉된 행정사는 조명현·김귀성씨 등 2명이다.

무료 상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진정·건의·인허가 면허 등 작성을 대행하고 각종 계약·협약·청구 등 거래에 대한 서류 작성을 대신해준다. 행정 관계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설명도 해준다.

마을 행정사 무료상담 신청은 군청 민원봉사과(061-540-3602~3604)에서 할 수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